

한국 도서관학·정보학 연구의 확대를 위한 소고

— 사회과학적 함의와 관련하여 —

이 순 재

〈동래여자전문대학 도서관과 전임강사〉

〈목 차〉

- I. 머리말
- II. 도서관학·정보학의 학문적 특성
 - 1. 종합성
 - 2. 현실적합성
 - 3. 과학성
- III. 한국 도서관학 정보학의 현실과 과제
 - 1. 교과과정 개편의 필요성과 사서 교육
 - 2. 연구방법론, 연구내용
- IV. 현단계 도서관학·정보학 연구를 위한 과제
- V. 맺음말

I. 머리말

오늘날 한국의 도서관학·정보학¹⁾은 근본적으로 전환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것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실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학과명칭의 변경—물론 이러한 현상의 주도적인 역할은 도서관학과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 비롯된 것임—과 관련된

것이며, 한편으로는 강단에서 행하여지는 교과과정의 내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과연 지금까지 한국의 도서관학·정보학이 진정한 기능을 다하여 왔으며 또 다하고 있는가? 국가발전의 초석 마련을 위한 도서관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정보에 대한 충분한 가치관을 계도하고 그 처리나 관리문제들의 해결에 충분히 기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의 도서관학·정보학이 우리의 토양에 뿌리를 박고 있으며 사회현실의 변화와 과학기술 수준의 향상에 조응하는 적실성(relevancy) 있는 학문으로 건설되었는가? 다가오는 사회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사서를 양성·배출시키고 있는가? 등등의 물음에 대하여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러한 정체에 대한 강한 의문은 비단 도서관학·정보학 뿐만 아니라 작금의 한국의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제기되고 있으며²⁾ 도서관학·정보학의 (정체)위기³⁾는 전반적인 인문·사회과학의 그것과 맞물려 있으며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도서관학·정보학의 정체에 대한

1) ‘도서관학’의 학명 개정에 관해서는 1971년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여 1990년 3월 현재까지 7개 대학이 학과명을 ‘문헌정보학과’로 개칭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서지학’부분을 제외시키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도서관학·정보학’으로 표기하였다. 한편 그렇다고해서 필자는 곧 ‘문헌정보학’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다.

2)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인문과학의 새로운 방향」,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학술단체연합심포지움 준비위원회 편, 「80년대 한국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 역사비평사, 1988을 참조할 것. 특히 이들은 학문 방법의 종합적 성찰, 새로운 방향모색을 위해 지난 날의 업적을 돌이켜 보고 오늘의 상황을 살림으로써 앞날을 전망하며, 학계의 민주화와 진보적 학문연구를 표방하고 있다.

3) 도서관학·정보학의 정체위기는 학문자체에 대한 사회의 부족한 인식과 더불어 사회의 흐름과 인접한 관련 학문의 발전속도에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초래되는 결과로 보여진다.

물음은 교수되는 학문의 내용을 대변하는 학과의 명칭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론과 실천,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제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논의가 부재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혹시 그 소임을 방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심스럽다.

기존의 인문·사회과학에 있어 현실과의 관계는 전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즉 현실에 바탕하여 그 모순을 지양하는 학문이 건설되지 못하고, '수입된' 학문이나 현실의 모순을 '은폐하는' 학문이 현실을 방기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학문은 한편으로는 현실에 대한 적용에 있어 부적실성의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의 변혁과정에서 주어지는 학문의 임무를 방기하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우리 도서관학·정보학은 여태껏 축적된 학문의 내용상 그렇게 엄청난(?) 소재⁴⁾를 다루면서 결코 수용되지 못할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부문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된 내용은 기실 우리와는 무관한 지적이 될 수는 있으나 최소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고는 필자가 나름대로 관찰한 현재의 도서관학·정보학에 관한 의문점들을 반성하고 숙고하는 의미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표출하기로 하며, 한편 논쟁이 드문 우리의 학문 풍토에 그 소재끼리가 될 수 있으리라는 보랏빛 환상으로 문제의 제기를 하기로 한다.

II. 도서관학·정보학의 학문적 특성

1. 종합성

19세기 말에 유럽과 미국의 대학에서 사서의 교육이 시작된 이래 한국에서는 이보다 반세기 정도 늦게 도서관학 교육이 시작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애독했을 「도서관학개론」⁵⁾에서는 도서관학(정보학)의 학문분류상 위치를 인문과학,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의 속성을 고루지닌 종합과학으로 규정지우고 있다.⁶⁾

도서관학·정보학이 인문과학의 속성을 포함하고, 사회과학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고 아울러 구체적 실현방법이 자연과학적인(응용과학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면 먼저 총체적 인식태도를 취하여야만 한다.

총체적 인식태도라 함은 일정한 문제를 전체와의 연관속에서 접근하고 파악하는 태도를 말하며, 이는 연구에 있어서도 통합과학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탐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세는 통합과학의 여러 분과학문(개별과학)을 없애고 단일한 하나의 통합과학으로서의 도서관학·정보학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종의 통합과학의 연구대상들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사회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개별과학도 그 자신의 내부에서 전체 체계와의 연관하에서 전개되고 체계화되어야 하며, 여러 개별과학은 각각 현실의 사회구조에 의거한 입체적 상호연관을 이루면서 정립

4)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에 해당하는 것이 「전도련」과 「전사협」등의 활동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정도로 판단된다. 이천효, "도서관 노동조합에 관한 고찰", 「국회도서관보」, 제25권, 제6호(1988. 11. 12), PP. 69~84; 강대훈, 「사회변혁을 위한 한국도서관 운동론」, 도서출판 광주, 1990; 김정근, 「대학도서관 운동에 있어서 주체의 문제—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헌정보학보」(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창설 10주년 기념논총), 제4집(1990), PP. 1~32; 정운현, 「공공도서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문교부·문화부의 관할싸움 계기로 본 실태」, 「月刊中央」, 90. 6月号, PP. 444~455.

5) 현대도서관학총서편찬위원회 편, 「도서관학 개론」, 한국도서관협회, 1981, PP. 42~45.

6) 정보학의 경우에도 R. S. Taylor는 종합과학으로 정의하며, H. Borko도 이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Pauline Atherton and Roger Greer, "Professional Aspects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RIST」, Vol. 3(1968), PP. 329~331; H. Borko, "Information Science: what is it?", 「American Documentation」, Vol. 19, No. 1(Jan. 1968), P. 5.

되어 전체로서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⁷⁾ 이러한 것은 곧 모든 통합과학의 개별과학은 그와 관련된 인접학문의 이론적 성과들과 항상 의사소통을 하면서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날 인문·사회과학의 이론구성과 연구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요구되는 인접학문과의 의사소통적, 종합적 방법(interdisciplinary attitude)은 이러한 요청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⁸⁾ 따라서 통합과학으로서의 도서관학·정보학은 특히 다른 어떤 통합과학의 개별과학보다도 비교적 종합학문적인 특성이 강하므로 이러한 총체적 인식태도는 더욱 강하게 요청된다.

어떤 대상이나 사실에 대한 인식이 현실적인 올바른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파악하여 여타 관련대상과의 연관속에서 고찰하여야 한다. 즉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서 학문분야의 대상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의 도서관학·정보학은 듀이(Melvil Dewey) 이래 강조되어온 기능주의적 패러다임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는 몰라도 지나치게 실무지향(practice oriented)의 측면에 비중을 두어왔던 것이 사실이며, 상대적으로 철학적인 측면, 도서관 정책, 정보에 대한 사회적 측면이나 정보문화에 관한 제반 문제, 정보불평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이데올로기 문제 등은 논의의 대상에서 거의 제외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가령 컴퓨터 공학의 발전이나 변화 등에 관해서는 대체로 도서관 자동화 부문이나 정보검색등의 분야에서 매우 민감하게 그 기술이나 이론들을 수용하고 있음은 여러 연구나 논문들

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인문·사회과학 부문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비교적 최근의 테마에 관해서는 흡수하는 형태가 매우 소극적인 것을 동시에 알 수 있다.⁹⁾ 이러한 단편적인 사실은 그간 한국의 도서관학·정보학이 기술이나 기법 위주로 학문적 영역을 본의아니게 왜소하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일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현실적합성

도서관학·정보학이 이용자인 인간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영역이 인문과학적인,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조직·관리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자연과학적인 속성을 띠는다면 이러한 두가지 속성은 결국 광의의 인간의 정보활동이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귀착되는 사회과학적인 속성에 의해 실질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도서관학·정보학의 사회과학적 속성은 그 이론이나 방법 등이 실제의 행위를 나타나게 되는 실천성을 담보하고 있느니 만큼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과학의 현실적합성 문제는 각 개별과학의 분야마다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7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해방이후 짧은 기간내에 외국이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기 시작하자 이에 대한 반성과 자각이 일어나면서 이른바 '국적있는 사회과학'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였다.¹⁰⁾

물론 도서관학·정보학의 경우에도 이러한 논의는

7) 水田洋·長洲一二, 張明國 옮김, 「社會科學講義」, 석담, 1982, P. 294; 高島善哉 編著, 배동문 옮김, 「現代的 社會科學」, 한밭, 1984, P. 66이하; 內田義彦·高桑純夫, 「社會科學綜合化의 視角」, 伊東光晴 外, 「社會科學의 根本問題」, 백산서당, P31 이하(이상 정종섭, "우리법학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하여", 『법과사회』, 제2호(1990), P. 226에서 재인용)

8) 이러한 논의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할 것. 오세철, "사회과학이론 및 방법의 통합과 행동과학의 역할", 『현상과 인식』, 제1권, 제1호(1977 봄), P. 24이하.

9) 예를들면 '한국사회성격논쟁'이나 '정치경제학', 사회 각 부문의 운동론 등에 대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도서관학·정보학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정보봉사'분야에서는 그 유용성이 크리라 여겨진다. 그 일례로 최두진, "국제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산업의 성격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 『미간분석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 1988. 과 같은 논문은 반드시 우리 분야에서도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10) 정종섭, 앞의글, P. 233

위와 같은 맥락에서 제기는 되었으나 그 정도는 다른 사회과학의 분야에 비하여 매우 미미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도서관학·정보학의 교육은 대개 도서관이나 정보자료실 등의 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료의 기술적 처리부분에만 거의 치우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정보문화 전반에 걸친 비전제시라든가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도서관학·정보학적 지식의 실용화, 대중화 및 정보로 인해 발생될 수도 있는 제반 상황들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제시 등 사회현실과 보다 밀착된 연구부문에 지금부터라도 최소한의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학문의 현실생활에로의 복귀를 통해 이러한 현상은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람시(A. Gramsci)가 주장한 것처럼 “천재적인 철학자 한 사람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 보다 대중들이 현실세계에 대해 일관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사고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창조적”이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적 연구는 자연과학과 대비하여 볼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시공을 달리하는 서구사회의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배태된 사회과학 이론과 연구방법을 그대로 우리 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하는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연역의 오류’이다.¹¹⁾

‘원래 사회과학은 사물의 관찰에서 일반적 법칙을 도출해내는 귀납적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일반 원리를 먼저 상정하고 출발하는 연역적 방법은 이점에서 비과학적이다. 듀르켄은 일찌기 사물에서 생각이 나와야지 그 반대로 생각이 사물을 선행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 사회과학이

일반적으로 범하고 있는 연역의 오류는 매우 원시적이다. 그것은 서구 사회과학의 “생각”(예컨대 가설, 접근법, 모델, 개념틀, 이론, 일반화 등)을 한국의 ‘사물’에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서구에 있어 그 생각은 사물에 대한 관찰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한국 땅에서는 귀납적 결론이 아닌, 연역적 원리가 되고 마는 것이다.¹²⁾ 비록 도서관학·정보학 분야에서 위와 같은 오류들이 구체적으로 실증된 바는 없을지라도 상당한 부분에 걸쳐 유사한 문제가 상존되어왔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특히 한국의 도서관학·정보학의 경우 한번쯤은 음미해두어야만 할 명제이다.

사실 인문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이를 세분하여 어느 하나에만 집중하다보면 분화된 개별과학은 그 자체로 독자성을 고집하면서 폐쇄성을 띠게되고 다른 학문들과의 연관성을 무시한 이데올로기까지 창출해내는 위험스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학문에 있어서 개별과학은 서로 이념적인 충돌을 초래하고 인식상 아무런 분열도 있을 수 없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까지 상이한 인식과 해석을 하게 되어 문제의 핵심을 흐리게 된다. 사회과학에 있어서 연구와 이론의 종합성 요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다.¹³⁾

마르크스주의적 용어로 말하자면 자연과학이 주로 사회의 생산력에 관심을 쏟는 반면에 사회과학은 생산관계와 그 생산관계를 유지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된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를 다룬다.¹⁴⁾ 그런데 도서관학·정보학은 그 학문적 속성이 분명히 사회과학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실제로는 이러한 부분들은 연구에서 취급하는 정도가 미미하

11) 박광주, “적실성 있는 사회과학이란 무엇인가?”, 부산대 사회조사연구소 학술토론회, 「韓國的 社會科學 方法論의 意義와 課題」, 1989. 5. 24, 발표요지 P. 7.

12) 같은 글, 그는 또 “이와 더불어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이상형의 오류’이다. 웨버는 일찌기 이상형은 실체가 아닌 비실제임을 분명히 지적하였다. 이상형은 어디까지나 실체를 보다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유용한 준거틀일 뿐이지 실제 그 자체와 혼동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서구사회과학의 ‘생각’들을 한국현실분석을 위해 빌려올 수 밖에 없다면 그것은 웨버가 말하는 식의 이상형에 머물러야 한다. 만일 그 ‘생각’들은 한국의 실제와 혼동한다면 이것 역시 또 하나의 원시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13) 오세철, 앞의 글, P. 31 이하(특히 P. 37) 참조.

14) J. D. Bernal, 박정호 역, 「사회과학의 역사—사회경제사의 흐름과 사회과학의 성격」, 한울, 1984, P. 28.

며 주로 생산력에 비견될 수 있는 기술, 기법의 개발·적용 등에 거의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오늘날 한국 도서관학·정보학(특히 정보학)이 자연과학적(응용과학적) 분야로 귀책되어가는 단적인 징표가 되고 있음은 주목할 일이다. 물론 어떤 학문분야에서 그 구성원 한부분 한부분이 중요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특히 한 분야에만 지나치게 매달리다 보면 정상적인 발전을 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특히 그것도 종합학문, 종합과학이라 자처하는 도서관학·정보학의 경우는 현재 상태로는 결코 학문의 제기능도, 사회의 인식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며,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도 없을 것임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느 하나의 방법론을 제일의 것으로 고집하는 것은 그 자체 매우 근시안적인 것인 동시에 바로 도그마이기 때문에 이는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느 특정의 방법론이나 인식틀을 신비화하는 것은 학문에 있어서 이론적 가치가 없는 주장이나 오도된 지식, 정보만을 제공하게 된다. 엄청나게 많은 잘못된 지식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이러한 연구자의 태도는 하나의 학문적 해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결국 현재의 한국 도서관학·정보학이 현실적합성을 온전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연구의 방법이나 분석의 과정, 인접 사회과학 분야의 지식습득 등의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연구의 소재 개발을 통해 극복되어야 할 우선적 과제이다. 반쪽 이론에 안주하는 몰가치적인 연구형태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3. 과학성

학문이 강한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

자의 자의가 배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론에 있어 과학성이라고 하면 흔히 객관성을 의미한다.¹⁵⁾ 인문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이를 모두 포괄하는 정신과학 내지 통합과학이든 그것이 절대불변의 법칙이나 절대불변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한편으로 사변을 배척하는 것이라면 그때의 객관성이란 대상을 그대로 모사하는 것도 아니며 진리인 참명제를 정립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다름아닌 설득력 내지 신뢰성이다.¹⁶⁾ 따라서 우리가 학문 특히 사회과학의 이론에 대하여 취할 태도는 가장 설득력있는 이론을 정립하거나 여러 이론들 중 가장 신뢰성이 높은 이론을 선택하는 것 뿐이다.¹⁷⁾

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종교나 예술에 비해, 모든 미신과 도그마를 타도한 빛나는 전통을 자신의 본질로 하는 과학이 언제나 비판에 대해 자신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새로운 도그마의 품으로 도피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목격하고 있다.¹⁸⁾

학문이 해당 사회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성실하게 접근하며 설명해 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자기변신이며, 학문 내적인 자기변신의 노력은 그것만으로는 구체적 현실에 대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함축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요구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원래 과학은 개개인의 일상적 삶에서의 추상화 과정—이런 의미에서 과학과 실천은 결합되어 있다—에서 출발하였지만, 노동의 분화에 의해 그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집단의 등장과 과학의 지배권력에 의해 일상적 삶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 … 노동분업과 계급분화로 학문의 영역에 전념하게 된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개념과 용어나, 고도의 지적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오직 서로

15) 정종섭, 앞의 글, P. 238

16) R. Rudner,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신형원 옮김, 「사회과학의 철학」, 연구사, 1986, P. 128 이하.

17) 같은 책, P. 133이하.

18) 김동춘, “한국사회에서의 지식인의 위상과 학술운동”, 「경제와 사회」, 창간호(1988. 겨울), PP. 103~104.

가 서로만을 위해 교환, 비판한다. ... 따라서 과학의 방법론적 전환은 과학의 독단적 권위로부터의 탈피, 즉 과학의 대중화로의 전진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⁹⁾

사회분화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의식과 개념을 정리하고 소화하지 않을 때, 과학은 필연적으로 강단화, 교조화 된다. 결국 학문과 과학의 연구는 현실생활에서의 복귀를 통하여 자기변신을 꾀하여야 할 것이며, "평화롭고 풍요하며 활동적인 삶을 스스로 건설하려는 모든 민중들의 노력과 연결되는 정도에 따라 충분한 지위를 얻을 수 있다."²⁰⁾

III. 한국 도서관학·정보학의 현실과 과제

1. 교과과정 개편의 필요성과 사서교육

도서관학과 정보학이 한국에 도입된 이래 2,30여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되고 있다. 굳이 이르자면 이젠 제 뿌리를 내렸고, 수많은 인력 또한 배출되어 사회의 요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바로 이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대한 기쁨이 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도서관학·정보학을 전공하였거나 전공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우리 학문이 이론적 학문이라기 보다는 실무지향(혹은 실천적)의 학문에 가깝다는 것을 익히 접하였을 터이다. 물론 어떤 학문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대상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들은 원래의 대상에 투사되어 영향을 미칠 때 다시 말하면 원

래의 대상들에 유용성을 가질 때 비로소 제 기능을 다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모든 학문은 공히 실천성을 대개 담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이론과 실천 양자의 비중은 다소 차이를 나타내지만 여태 한국의 도서관학·정보학은 실무지향으로 편중되어 왔음은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 나머지 우리의 실정에 맞는 이론의 개발은 소수에 불과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진정 우리의 학문으로 자리잡는데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합당한 이론을 기반으로 한 실천이 유용성을 갖는다면 바로 이는 올바른 실천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서관학·정보학은 학문적 정의²¹⁾에서 나타내고 있는 연구영역에서 최소한의 부분만을 왜소화시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²²⁾ 한가지 예를 들면 도서관학²³⁾이 '도서관 현상'에 관련된 학문이라는 정의에서 보면, '도서관 현상'은 사회의 여타 현상들과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을 터인데 이러한 사회현상들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에 반영시키지 못했거나 반영시켰더라도 그 정도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인데 '정보학자(Information Scientist)를 "정보의 내용 자체보다는 정보의 수집, 처리, 검색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자"²⁴⁾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지나치게 기능면만 강조하는 '왜소화'정의로 여겨진다. 이는 정보학의 인문·사회과학적인 속성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며, 사회구조(성격)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문화

19) 같은 글, PP. 105~106.

20) J. D. Bernal, 박정호 역, 앞의 책, P. 209

21) 사공 철 등편, 「도서관학·정보학 용어사전」, 한국도서관협회, 1986, P. 55, P. 188 참조. 물론 도서관학과 정보학을 정의하고 있는 사전, 논문, 단행본이 부지기수이나, 그 중 비교적 최신의 것으로 두 분야를 두루 포괄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표로 선정하였음. 한편 학문적 정의는 학문의 발전이나 시대적·사회적 변화의 요청에 부응하여 재정립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곧 학문의 발전에 따라 대상들이 확대될 수도 있으며, 서로 유기적 관련을 갖는 인접분야가 접목되어 연구영역에 새로이 추가될 수도 있다.

22) 이에 대해서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그 중 중요한 한가지 요인은 연구자의 부족도 그 하나라 생각된다. 다양한 주제배경을 갖춘 우수한 연구자의 확보, 양성은 시급한 과제로 보여진다.

23) 같은 책, P. 55.

24) 같은 책, P. 188.

제시자로서의 역할은 제외되어 있다. 물론 정보학의 성립기반이 급증하는 과학정보의 처리에 관심을 가졌을지언정 학문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부각되는 관련 분야의 흡수, 포용에는 거의 무관심하였다는 사실은 상기하여 볼 일이다. 인접한 학문간에서 두 학문의 중간 지점에서 새로이 파생되는 제3의 테마나 소재들은 일단 선점하여 자기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학문의 발전을 위해 의의가 있는 일이다.

사회는 항상 변화하고 발전한다. 따라서 학문이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구조의 변화에 적응하고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변신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작금의 학문세계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물론 우리 도서관학·정보학 분야도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학과 명칭에 관한 쟁점들이 구체적으로 매듭지어지고 있다는 점²⁵⁾에서 그 출발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분야의 이러한 변화들은 타학문분야의 변화들과 비교하여 볼 때 차원을 달리하는 지극히 초보적인 움직임에 불과할 뿐이다.

현재 대학에서 개설되어 있는 교과과정²⁶⁾은 한국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거의 유사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수년전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시대적 상황이 달라진 지금까지 자기변신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탄의 대상이 될 만하다.

최근 도서관학과 학생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학과 명칭의 변경에 관한 운동들은 그간의 한국도서관학·정보학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필자의 생각으로는 한국에 도서관학·정보학이 도입된 이래 꾸준히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이에 병행하여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충실히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적실성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던들 이같은 요구의 강도는 그 수준을 달리할 수도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해방 이후 한국의 사서교육은 자료처리를 위한 유능한 기능인 양성에는 이바지 하였을지언정 기실 정보문화 전달자로서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음을 노정시키고 있다. 최근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전사협」²⁷⁾의 움직임은 일차적으로는 여태까지 소외되

25) 이에 대해서는 1990년도 3개학회(한국도서관학회, 서지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이재철 교수의 “학문 분류상으로 본 문헌정보학의 위상”에서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학명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나 그 명칭이 ‘문헌정보학’이라는데 대해 전적인 공감을 형성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만일 학명을 바꾼다면 현재로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을 감안 한다면 ‘문헌정보학’으로 귀책될 것이며, 그런 점에서 ‘문헌정보학’은 대세라 여겨진다.

26) 도서관학 교육(교과)과정에 관한 연구들로는

①김명옥 외, 전문대학 도서관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1983, 7.

②최성진 외, “한국적 도서관학 교육과정 연구”, 圖書館學, 第十二輯(1985), PP. 269~327.

③蘇時重 外, 專門大學 圖書館科의 模型教育課程 修正開發에 關한 研究, 1989, 8. 등이 있다. ①의 연구는 전문대학 교과과정과 현장의 유용성 연계성을 분석 검토한 것으로 45명의 준사서들의 현장근무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야를 알아보고 이를 분석 검토하였으나, 수집된 자료들은 혁신적 교육과정 편성의 중심이 되지 않았고 소극적으로 현행 교육과정의 약점을 보완하는데 사용되었을 뿐이다. ③의 연구는 ①에서 발표 제시된 모형교육과정이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적용되어지는가를 각 전문대학의 도서관과 교과과정표와 비교하여보고 상이한 교과목은 현실에 맞게 수정 조절하였다. 또한 ②의 연구는 5개 대학 도서관학과 졸업자 중에서 표본을 선택해서 직무수행시 필요한 지식의 영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교육과정 편성·개정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되었으며, 그 활용여부에 따라 훌륭한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한편 교육과정은 어디까지나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는 목적이나 상황의 변화에 병행하여 끊임없는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미래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교육과정의 개정에 대해 필자의 견해로는 현행 교과목을 초월하여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여겨진다. 모름지기 유능한 정보관리자란 물론 업무의 처리에도 뛰어나야 하겠지만, 또한 훌륭한 정신과 철학과 가치관을 겸비하여 탁월한 안목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더 우위에 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27) 전국사서협회는 젊은 층의 현직 사서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며, 도서관계에 내재된 문제점 해결과 스스로의 권익향상을 위해 결성되었다. 그러나 그 활동역량은 아직 미지수이며, 뿌리깊은 도서관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그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일관성있게 실천을 실행함으로써 목적하는 바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있던 도서관계의 불합리한 현실에 기인한 것이지만, 내부를 들여다 보면 교육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한국의 도서관학·정보학의 기능주의적 함몰은 주제배정의 확보 내지 습득 기회를 유보시킨 체 테크닉의 주입에 주력하였음에서 연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교과과정이 '사실을 기계적으로 배우는 것 보다는 이해력에, 관계적인 것 보다는 원리의 기술에 중점을 두었어야 함에도, 또한 학문분야의 관련성과 끊임없는 직업성장의 증진을 강조해야 함에도, 그것은 또한 세계를 보는 투시력(안목)을 가려야 함'에도 이는 너무나 초보적인 수준으로 혹은 거의 도의시해왔음은 자명하다.²⁸⁾

'변화를 싫어하는 사서들의 속성'²⁹⁾, '그래도 이 사회에서 배울 만큼 배운 계층이면서도 자기 주장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모여서 논의할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모든 걸 만족하지도 않는 특이한 집단'³⁰⁾— 이에 대해 그 조직, 그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교육이 결백함을 애써 변명할 여지는 거의 없다. 더욱이 '사서들에 대한 이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는 대학에서 도서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 중에서 남자 지원자의 수가 격감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³¹⁾라는 날카로운 지적은 다소 심할 지 모르겠으나, 선배사서들의 무관심과 더불어 풍부하고 창의적인 연구영역들을 매장시킨 채 숙련된 기능인으로 전락시킨 교육의 과오가 또 다른 일익을 담당했으리라는 추측도 쉽게 가능하다.

결국 현재 한국의 도서관학·정보학은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적실성있는 변신을 위하여 현행 교과과정을 대폭 개편하여 도래할 정보화 사회의 주역—기술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을 겸비한 사서—으로 양성해야 할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

는 곧 학문의 사회봉사라는 학문적 소임과 무관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여타 학문과 보조를 같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이다.

2. 연구방법론, 연구내용

1970년대 이르러 사회과학계는 학문의 토착화, 방법론의 토착화 논의가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사회과학자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본질적인 인식론적 전환의 계기로까지 이르지 못했다.³²⁾ 그간 기존 학계는 대안을 갖지 못한 단순한 사회비판의 차원에 머물렀으며,³³⁾ 80년대 사회운동의 질적 발전에 자극을 받으면서 보수적인 학계에서도 일정한 자기 반성의 흐름들이 나타났다. 그 결과 젊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사회적 모순과 민중들의 욕구에 자신의 연구방향을 더욱 밀착시키려는 시도를 낳게 하였으며, 학문사회의 일반적 풍토도 새로운 연구의 내용과 형식의 창출을 위한 객관적 조건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론과 실천의 결합 혹은 과학과 대중의 결합, 학문방법론의 새로운 전환이 모색되었다.³⁴⁾

연구자들의 무기는 다름아닌 이론이며, 이론의 현실적합성과 실천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연구자들의 활동은 그 존재기반을 부정당할 것이다. 학문, 특히 사회과학이 특정사회의 제 조건으로부터 연구의 주제를 제공받고, 그 성과물을 사회의 성원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에 속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국의 사회과학계에서는 이러한 상식이 '비상식'화 되어왔다. 그것은 학문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도 기인하겠지만, 그저 낯선 서구이론의 맹목적 도입에 몰두하거나 한국현실을 그 이론의 실험대상으로 삼

28) 강대훈, 앞의 책, P. 53.

29) 정운현, 앞의 글, P. 451.

30) 같은 글, P. 454.

31) 같은 글.

32) 김동춘, "학술운동론", 「산업사회연구」, 제2집(1987), P. 234.

33) 같은 글.

34) 80년대 이후 인문·사회과학계의 소장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새로운 연구성과들과 여러 학문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등장한 신홍학회, 연구회, 연구소등은 바로 그러한 노력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는 학문적 비주체성의 사정에도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그 사회를 토대로 삼는 학문도 병행하여 변화, 발전해 나갈 때 비로소 학문의 자기 위상도 확보된다. 즉 이론이 실천을 전제로하여 현실속에서 자신을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명제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출발점이 된다. 적어도 한국의 도서관학·정보학은 타학문에 비하여 늦게 출발하였지만 서구의 낯선 학문을 도입하여 뿌리를 내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었고,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는 연구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보다 더 연구에 정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부연하면 연구방법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며, 연구의 대상도 심화, 확대시켜야 한다.

적실성있게 대처하지 못한 제도교육은 이수한 세대들에게 과학, 이론은 오직 전문가의 일로서 간주되고, 학교교육에서 습득한 인식틀을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은 채 간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학문이 얼마나 대중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현재의 대학에서 마련해 놓은 ‘학문적 지형’의 성격에 따라 좌우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지형속에서만 안주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획득해내는 일을 자신의 가능한 과제로 삼고 만족해왔던 학계는 지속적인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 뿌리깊은 보수적 아카데미즘의 극복은 연구자 개인이 단순히 강렬한 현실비판의식을 갖는 것만으로 성취되는 것은 아니고, 전문적 연구역량에 기초한 전반적인 이론수준의 제고 위에서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학문의 위상을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학문이 대상으로 삼는 사회의 모순을 바로 잡고, 학문의 영역 심화·확대를 통하여 사회기여의 폭을 넓히고 동시에 과학적 이론의 수립을 통한 실천과의 통합이

라는 철학적 물음에 응답할 수 있는 연구활동이 새롭게 보석·고찰되어야 한다. 이는 이론으로 회귀하기 위한 과정의 고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현실에 다가가서 현실운동의 과정에 융해되는 과정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또한 실천적인 학술운동을 통하여 대중속으로 복귀하는 일은 절실히 요청되는 과제이다. 즉 현재의 방식에서 이를 포함하여 보다 진전된 현실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연구자라는 이름으로 전체의 문제를 회피한다고 할 때, 그는 사회와 현실에 대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써 이미 기존 지배질서의 유지에 동조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연구방법론의 전환은 이전에 손이 미치지 못한 새로운 연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간의 한국 도서관학·정보학의 연구내용들은 실용주의적 기능주의 철학의 영향타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도서관 업무의 능률향상 내지는 정보의 수집, 처리, 검색 효율성의 극대화 등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물론 황무지 상태에서 서구의 이론을 이 땅의 후학들에게 소개한 선배 학자들의 학문적 노력은 이 흐름속에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더 나아가 연구자들은 인식론적 전환을 통하여 보다 진전된 연구테마의 확보와 개발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그 구체적 내용은 사회변화와 학문발전 상황의 연장선 상에서 연구대상들을 찾아야 한다.

먼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연구부문의 하나는 ‘도서관 운동’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서관 운동이란 도서관 조직의 자기정화운동³⁵⁾에서부터 비롯하여, 사서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의 심화·확대 및 제도확보, 사회성격의 정확한 인식을 통한 도서관의 대중성 확보³⁶⁾와 도서관의 본질 회복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반

35) 김정근, 앞의 글, PP. 1~30. 이 글은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주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그 내용은 아마 모든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안고 있는 서글픈 사실로 여겨지며, 어쩌면 관중을 달리하는 모든 도서관들에서도 그 내면은 공통점을 함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도서관 조직의 자기 정화운동이란 이러한 비상식적인 현재의 관행과 모순을 떨치는 것으로 대변된다.

36) 이천효, “도서관의 대중화를 위한 방향설정”, 『한국평론』, 창간호(1989), PP. 113~125. 이 글에서 도서관의 대중성 확보를

활동들을 지칭한다. 돌이켜 보면 그간 우리 학문은 지나치게 업무의 수행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테크닉의 배양에 치중한 나머지 저변에 깔린 철학에 대한 분야나 가치관의 형성 또한 전체를 파악하는 안목을 키워주는 활동들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결과로 기존의 조직에서 순응하게 만드는 퍼스널리티의 소유자로 양성하지나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결국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현재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이 정확한 인식론적 기반위에서 왜곡된 도서관의 본질을 바로잡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사서들의 위상확보 및 사회적 통념을 전회시키는 부분이 핵심을 이루며, 연구 또한 이러한 과제 실현을 위해 전체 운동과 결합하고 원조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연구내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학문의 발전과 분화로 인해 창출되는 파생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어설픈 기법이나 테크닉의 적용들은 자제하고 현재의 역량과 조건에 맞는 다양한 실천형태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관한 분야로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정보공개' 분야와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정보정책'분야 등에 우리의 입김을 불어 넣어야 한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가 복무할 일과 '사회정보학', '정보환경론', '정보문화론', '도서관 철학', '정보문제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 접근-에컨데 계급과 소득분배에 따른 정보불평등 현상 등-', '사회과학적 측면에서의 정보유통' 등의 분야에 연구력을 투자해볼 가치가 충분히 존재하리라 본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집중된 사례연구에 덧붙여 원리와 이론의 정립과 그 실천을 통한 학문의 대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제간 연구'를 적극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공동

연구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한 연구자로서 스스로 여러 분야를 이리저리 뛰어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점이 대이론가, 대사상가들로부터 배울 점이다. 도서관학·정보학(특히 정보학)은 유달리 관련 학문이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히 된다. 연구의 영역을 확대·심화시켜 그 질을 높이지 않는 한 항상 도서관학·정보학은 주변 학문(사회의 인식을 절실하게 받지 못하는 학문)으로 맴돌 뿐이며, 주류가 되지 못하고 아류로서만 존재할 따름이다.

또한 연구(자)의 재생산 구도가 절실히 요청된다. 학술 연구자로서의 자기 위상을 가지고 있는 한, 연구자의 과학활동은 그 자체 지속적인 자기(확대) 재생산 구도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학술적 지평에서는 '질적수준'이라는 고리에 묶이고, 일상의 영역에서는 '대중적'이라는 고리에 발목잡혀 있음도 사실이나 이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IV. 현단계 도서관학·정보학 연구를 위한 과제

우리나라 도서관학·정보학은 주로 미국의 도서관학·정보학의 영향하에서 답습·발전되어왔다는 사실은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한다. 이러한 사실은 '주체의 부재'현상³⁷⁾으로 파악될 수도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문의 질적·양적 팽창과 현실 진단의 부족에 연유한 연구자들의 책임방기 및 사회와 학문의 발전에 적실성있게 변신하지 못한 사정 다시 말하여 '대체 패러다임'의 미확보에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 제기되기 시작한 도서관학과 학생들의 학과명칭 개정운동과 도서관법 개정에 대한 조직적인 관심, 도서관 관할 행정기관의 이전문제, 또한 현장

위해 사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의 개편, 도서관학자들의 현실참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도서관정보 정책의 수립, 사서직의 처우개선 등이 상호협력체제가 구축될 때 가능할 것이라 하고 있다.

37) 김정근, 앞의 글, P. 3.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 있어서의 구성원 문제의 모순구조를 극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주체의 부재현상'을 들고 있지만, 본고에서 필자는 학문에 있어 이를 계승·발전시킬 전통이 마련되지 못함을 역시 '주체의 부재현상'으로 파악한다.

근무 사서들의 「전사협」 결성 등은 괄목할만한 일대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러한 ‘도서관 운동’들은 학계의 이론에 의해 뒷받침될 때 더욱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겠으나, 학계는 소극적으로 관심을 나타냈을 뿐이며, 현실에의 자기안주라는 보수성을 드러내고 있음은 생각해 볼 점이다. 이러한 풍토하에서 현실과의 치열한 지적대결은 회피(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되었고, 기존의 마련된 연구활동 영역만을 고수하는 소극적인 학문적 자세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비판’의 참 뜻이 그러하듯이 끊임없는 비판의 행위가 요청된다. 비판은 단순히 주류를 거부하는데서 끝나는 것도 아니며, 어느 특정 관념에 귀속하여 거기에 안주하는 것도 아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진지하게 수행될 때만 노정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³⁸⁾

먼저 우리 학문이 대상으로 하는 문제나 정보관련 문제들을 전체와의 연관속에서 파악하는 총체적 인식태도가 요구된다. 도서관학·정보학은 특히 인접한 관련학문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기존의 인식틀을 재조명하여 실제로 요구되는 타학문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재창출하여 모름지기 ‘학문중의 학문’으로 전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다소 진보적인 사상이나 테마들을 진지하게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겠다.

다음으로 경험적·과학적 태도가 요구된다. 이는 도서관학·정보학이 주관적인 사변의 산물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현실이나 현상에 맹목적으로 매몰되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도서관이나 정보시스템과 현실사회간의 현상 또는 그들

상호간의 연관을 대상으로 과학적으로 탐구하여야 한다. 도서관학·정보학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은 결코 학자와 대립되는 위치에 분리되어 존재하는 객체가 아닐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임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통합과학으로서의 도서관학·정보학이 경험적·과학적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은 곧 문제를 신비화시키는 태도를 배격하고 신비화시키는 논리도 부정한다는 의미이며, 사변주의나 비속한 경험주의는 배척되어야 한다. 결국 경험적·과학적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은 도서관학·정보학에서 이론과 학설은 항상 현실의 경험적 사실속에서 시험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이론적 성과들은 끊임없는 검증과 수정의 무한한 반복과정을 통하여 과학성을 획득한다는 의미이다. 흔히 한국의 도서관학·정보학은 대부분의 경우 독창적인 뚜렷한 핵심을 보유하고 있지 못함이 지적되는 바 이는 여러 인접학문의 이론을 떼어다 조립한데서 초래되고 있는 탓은 아닌지 살펴 볼 일이다.

덧붙여 실천적 태도를 취할 것이 요청된다. 바로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 학문이 가장 초점을 두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한국에 도서관학·정보학이 도입된지도 어언 수십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도 다른 분야의 연구자나 대중들은 도서관학·정보학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거나 혹은 극히 초보적인 이해만 하고 있을 뿐이다.³⁹⁾ 무릇 학문이 사회와 연계되어 그 결과들이 곧바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이러한 잘못된 혹은 부족한 인식의 배경에는 분명히 연구자들의 책임도 상당한 부분 내제되어 있다. 인문·사회과학(특히 사회과학)의 발달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과학은 각 시대와 장소에 따른 국가, 사회현실의 문제에서 촉발되어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성과로서 발전되어 온 것인 만큼 이는 항

38) 일본의 水田洋, 長洲一二는 사회과학에 있어서 요구되는 자세를 ‘전체를 인식하는 태도’, ‘경험적 태도’, ‘실천적 태도’, ‘역사적 태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水田洋·長洲一二, 앞의 책 P. 293. 이하.

39) 예를들면 도서관은 수험생의 독서실, 시험공부 하는 곳, 책을 빌려 주는 곳, 정보를 찾기보다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그 공간만을 이용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을 위시한 각종 도서관에 내제되어 있는 모순 구조는 그 연장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도서관학·정보학도 역시 그러한 행위가 가능하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보잘 것 없는 체계로 밖에 인식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결론지을 수 있다.

상 현실적인 관점에서 현실사회의 문제점들을 발견해야 하고 항상 그것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실천적이라는 의미는 물론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것도 아니고 단순히 실제적인 것도 아니다. 이는 그 시대의 도서관 문제 및 정보관련 문제에 대하여 학자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에 뿌리내린 문제의식을 가지고 치열하게 대결한다는 것 즉 사회의 요구에 따라 혹은 그 방향제시를 위하여 여러 문제에 답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뜻한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한다면 도서관학·정보학에 있어서 이론과 실천의 문제는 당연한 상식이며, 결코 실천성을 방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한국의 도서관학·정보학이 거듭 태어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V. 맺음말

비록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도서관법의 개정, 학과명칭의 개정, 「전사협」의 결성을 통한 도서관운동의 태동 등은 이 시대의 '마지막 무풍지대'인 도서관계의 참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 진다.

새로운 사회는 기존의 체계와 질서와 산물로는 미흡하며, 결맞는 변신을 요청한다. 사회라는 광범위한 구조속에서 우리 도서관학·정보학은 표시나지 않게 비중있는 본분을 수행해 왔으며 또 앞으로도 그리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학문도 주체적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할 시점에 처해 있으며, 우리는 이 요청을 겸허하게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학문의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이러한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역사이다. 이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문제점들을 간략히 지적하여 보았으나, 이는 반드시 옳다고 확신하지도 않으며 도서관학·정보학이 모두 그렇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학문적 주장은 반드시 학문의 세계에서 여러 사람에게 의해 검토되고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가지 밝혀둘 사실은 이상의 주장들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 실증적인 분석작업이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일부러 시행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필자의 이 글에서의 주장은 결코 독자적인 것은 아니며, 오늘날 인문·사회과학계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문제들에서 느낀 바를 우리 분야에서 해석하고, 젊은 연구자들의 내적 고민들에서 시사를 받은 바가 크다. 이에 병행하는 구체적인 연구의 확대와 방법론은 이 글에서 부터 출발하여 그 모습을 점차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공유한다면 세대간의 골이 깊을 수도 없을 것이며, 학문도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리라 생각된다. 개인이 살아가는 데는 스스로를 잘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학문에 있어서는 결코 대단한 것이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자가 소위 ‘과학성’이라는 데 구애되어 소극적 기능만을 수행한다면 사회는 점점 기술문명이 지배하고 문화는 기술공급자들이 형성해 버릴 위험성이 있다. 전진한 사회, 인간적인 사회 등의 이상을 추구하는 사회과학자라면 비록 좀 덜 ‘과학적’이라고 하여도 사회의 비평과 방향제시라는 커다란 책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⁴⁰⁾ 학문적 성과물은 그 자체로는 현실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는 것이 없더라도 그것에 영감을 얻은 수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의 계승에 의해 현실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서관학·정보학이 자기변신을 위해서는 기존 방법론적 전제에 대한 비판, 새로운 개념의 도입과 개발, 새로운 연구영역의 개척과 분과간 협동(interdisciplinary) 연구방법론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0) 김운상, “사회과학 연구와 전자계산기”, 社會科學研究(慶北大學校 社會科學연구소), 第1卷, 第1號(1985), P. 14.